

움직이는 학교 보고서

작성자 : 정인

단체 소개

맨발동무도서관

부산광역시 북구 양달로 64 대천천환경문화센터 3층

T. 051-333-2263

맨발동무도서관은 2005년에 만들어진 사립공공도서관이다.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후원자들의 수는 200여 명 이상이다. 그 외에도 자원활동가들이 도서관의 일을 돕고 있고 5명의 도서관 활동가가 있다. 주로 부산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도서관 내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도서관의 특이한 점은 도서관에서 마을 기록관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우리 마을의 사진을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모아 기록관을 만들었다. 맨발동무도서관은 올해 6월 마을 기록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은 인터뷰를 참고하면 된다.

단체선정 이유

나는 개인무빙 단체를 선정할 여러 단체를 찾아봤지만 그다지 끌리는 단체는 없었는데 엄마와 전화를 하다가 나온 단체가 맨발동무도서관이었다. 그래서 맨발동무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어릴 때 많이 가봤던 곳’, ‘요즘 책에 관심이 많아졌다’, ‘집이랑 가깝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떠올랐다, 이 정도면 내가 이곳을 내 개인무빙 단체로 선정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업무

내가 도서관에서 한 업무는 청소, 책 소독, 서가 정리, 대출 반납이다. 그 외에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는 인사가 있다. 하루 중 2번 정도는 항상 인사를 했다. 가끔은 ‘어디서 뵈 적이 있는 분인데’ 싶은 분도 많이 오셨다.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청소였다. 아침에 출근해서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은 뜨거운 도서관에서 청소를 하면 눈앞이 흐려지는게 뭘지 알 수 있게 된다. 책 소독과 서가 정리는 인내심과 끈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이라면 인내심이 무한대에 가깝고 하고 싶지 않고 재미없는 일이라면 인내심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다. 다행히도 책 소독과 서가 정리는 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사실 하루 중에 일을 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다. 출근 후 뜨거움 속에서 청소를 하고 나면 한동안은 할 게 없다. 쉬고 있다가 책이 어느 정도 쌓이면 책 소독과 서가 정리를 한다. 책 소독과 서가 정리는 길어봐야 40분 정도 걸린다. 이런 일을 하루에 1~2번 정도만 하면 일과는 거의 끝난다. 사이사이 대출 반납만 관리하면 된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청소다. 가장 힘들었던 일이어서 그런 것 같다. 가장 좋았던 기억은 마지막 퇴근이었다. 마지막=기분 좋음, 퇴근=기분 좋음. 마지막+퇴근=최고의 기쁨. 그 외에도 매일 점심시간은 항상 행복한 기억이다.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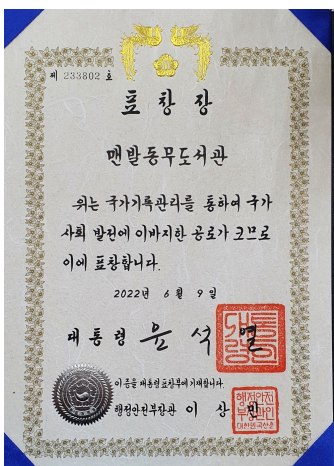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3주간 출근을 싫어하고 퇴근을 좋아하고 휴일을 사랑하며 살았다. 배운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첫날부터 야외 행사에 참여했다. 그 뒤로는 계속 도서관으로 출근했다. 출

근 후 항상 청소를 하고 책 소독을 하고 서가 정리를 했다. 루틴 같은 느낌이었다. 사실 도서관에 가기 전에 예상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책을 소독하는 일이었다. 매일 똑같이 살다 보니 낯짜 감각이 사라졌다. 내 생각보다 할 일이 없었지만, 또 많기도 했다. 업무상으로 가장 많이 한 일은 위의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한 일은 인사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인사를 하루에 2회 이상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내가 활동하는 동안 활동가분들이 나한테 많이 하신 말 중 하나가 빈말이셨겠지만 도서관에서 일해보라는 말이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럴 마음은 있다. 언젠가는 도서관에서 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구체적 활동 내용

	활동 내용	
	오전	오후
수	월, 화 동안 쌓인 책 정리 대출 반납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목	한 반 나들이 보조 대출 반납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금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토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일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책 소독 책 정리 대출 반납

활동 사진





인터뷰

자기소개

저는 파도입니다. 2018년에 도서관 자원활동가로 시작해서
2021년에 도서관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나눔자리에서 이용자와 만나고 있고요.
학교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소개

마을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사립공공도서관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작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2005년에 2,000권의 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0,000권이 넘는 책을 보유하고 있고 만화부터 DVD, 잡지까지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일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정말 많은데요. 우선 마을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근처에 있는 학교나 시설을 찾아가 책을 읽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작가 강연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인
4시 읽기, 잘가요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찰방찰방과 달빛극장이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일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4. 10:00~16:20
장소	부산 북구 장미공원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외부행사 참여와 짐 나르기 등의 몸 쓰는 일		
특이사항	할 일이 없음		
소감	첫 출근이 외부활동이었는데 별생각 없었다. 생각보다 할 일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다. 할 일이 없어서 서 있다가 앉아있다가를 반복했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휴일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8. 09:30~18:05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특이사항	할 일이 있는데 없음		
소감	첫 도서관 출근이었다. 가자마자 청소를 한다. 수요일에는 소독할 책이 많다. 물론 정리할 책도 많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9. 09:30~18:05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관 활동 지원		
특이사항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문 활동이 있었다.		
소감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문이 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정리할 책도 많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0. 09:30~18:02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도서 대출 반납을 하기 시작했다.		
소감	도서 대출 반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할 게 없다. 오늘은 소독하고 정리할 책마저도 없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1. 09:30~18:17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동아리 활동		
특이사항	주말 동아리 활동		
소감	주말이다. 사람이 많다. 오후에 사람들이 몰린다. 오 이런 힘들다. 동아리 활동이 있었다. 오 이런 퇴근이 늦어진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2. 09:30~17:15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서가 정리		
특이사항	주말 서기 정리		
소감	주말이다. 사람이 많다. 어제보다 더 많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다. 힘들다. 오늘은 퇴근이 빨라서 좋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휴일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5. 09:25~18:03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죽을 뻔 했음		
소감	수요일이다. 일이 많다. 손님도 많다. 죽을 것 같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6. 09:25~18:00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담임교사 방문		
소감	손님이 없다. 일도 없다. 부활할 것 같다. 쌤이 왔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7. 09:30~18:13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X		
소감	너무 덥다. 다시 죽을 것 같다. 일은 그럭저럭 적당했다. 오전에는 손님이 많은데 오후에는 없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8. 09:30~17:03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주말		
소감	오늘도 덥다. 오늘은 할 일이 별로 없다. 마음이가 날 힘들게 한다. 할 일은 없는데 오늘이 가장 힘들었다. 퇴근하는 길에 객사할 뻔했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19. 09:30~17:05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주말		
소감	주말이다. 사람이 없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다.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휴일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22. 09:30~18:00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X		
소감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을 했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23. 09:30~17:58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X		
소감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할 일은 많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다 못했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선물		
기타			

이름	정인	날짜 활동시간	6/24. 09:30~18:07
장소	맨발동무 도서관	도움주신 분들	
활동내용	청소, 책 소독, 책 정리, 도서 대출 반납		
특이사항	마지막		
소감	마지막 날이다.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다. 마지막 날인데 열심히 해본다.		
다음 (내일) 활동계획	X		
다음 (내일) 준비할 것	X		
기타			